

월요 동기골프

주광국 (68)

매주 월요일 아침은 분주하다. 몸도 마음도 바빠진다. 아내도 아침밥 준비하랴, 옷 골라주랴 또 중간에 먹을 간식을 챙겨주랴 바빠진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약간은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집을 떠난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대학동기들이 모여서 같이 골프치는 날이다. 다른 날에는 각자 속한 골프장에서 어부인과 아니면 다른 골프장 멤버들과하고 골프를 친다.

나는 뉴욕주 버팔로에서 은퇴하고 2014 년 여름에 워싱턴근교 Virginia 로 이사왔다. 그 당시 Metropolitan Washington DC 에는 Training 을 끝내고 오래 전부터 Practice 하면서 정착하여 원주민이라 불리는 동기가 5 명이 있었고, 다른 지방에서 특히 북쪽에서 Practice 하다가 은퇴하고 이곳으로 이사온 이주민이라 불리는 동기가 나를 포함하여 5 명이 되었다. 처음에는 대학동기가 모두 10 명이 있었으나 그 중 2 명은 불행하게도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후에 또 한 동기가 이곳으로 이사와서 지금은 동기만 9 명이 있다. 이 9 명 동기가 모두 골프를 좋아해서 매주 월요일에 같이 골프치고 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화요일로 옮겨서 골프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동기들은 물론 이곳의 다른 대학동창이나 교포사회에서 많은 부러움을 받고있다. 이지역은 겨울이 짧고 Mild 하고 여름은 조금 무더워 한국의 부산이나 대구같은 날씨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3 번째로 커진 Korea Town 이 형성되어서 많은 동문들이 은퇴하여 Southern California 다음으로 또 동부에서는 대학 동창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사온 해인 2014 년 여름부터 원주민인 영덕, 용계, 철이와 함께 foursome 을 만들어 골프를 쳤다. 모두들 은퇴하여 바쁜 주말을 피하고 주중에 Senior Discount 를 받으며 한가한 월요일에 골프치기로 했다. 용계가 골프반장이 되어 매주 워싱턴 근교 Virginia 와 Maryland 의 골프장을 선택하고 Tee Time 을 만들어 Cell Phone 으로 아니면 email 로 보내주곤 했다. 몇 달 후에 윤석, 재성, 주평이 참가하게 되어 2 팀이 되었다. 진홍은 그때 아직 일하고 있어 참가하지 못하고 대신 69 년에 졸업한 후배가 우리와 함께 2 foursome 으로 월요골프를 하게되었다.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타 대학 출신 원주민이 참가하여 8 명이 주로 골프를 쳤다. 진홍이가 은퇴하여 우리 월요 동기골프에 합류하면서 동기들로만 2 foursome 을 만들게 되었다. 부득이 그후배는 빠지게 되고 타 대학 출신 원주민과 함께 Waiting List 에 들어가 필요할 때 대타로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희주가 은퇴하고 이사온 후 동기가 9 명이 되어 사정은 조금 복잡하게 되었다. 골프 티타임을 연달아 3 개 만드는 것도 쉽지않고 threesome 보다는 foursome 이 되어야 더 재미있다. 그러나 9 명 중에 한 사람은 여행을 간다든지, 감기가 걸렸다든지, Doctor Appointment 가 있다든지, 이웃에 살고있는 손자가 아파서 Day Care Center 에 가지못해 손자

돌보느라 참석 못한다던지 또 다른 개인사정 때문에 월요 골프를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 거의 대부분 8 명이 골프치곤 했다. 또 한 사람이 더 빠지면 Waiting list 에서 대타를 구해 거의 항상 2 foursome 으로 골프치게 되었다. 9 명 동기가 골프를 다 치겠다고 하면 2 foursome 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 양보하곤 했다. 그래서 골프대장은 매주 바쁘다. 모두 몇 명이 골프치게 되는지, 어떤 골프장에서 칠런지, 티타임을 예약해야지 또 우리 모두에게 연락해야지 참으로 바빠진다. 처음 4 명이 골프칠 때는 email 이나 전화로 연락했으나 지금은 9 명과 모두 Kakao Talk 의 group chatroom 을 만들어 소통하니 한결 능률적이고 편해지고 되었다. 또 우리 모두 Golf green fee 를 discount 해주는 'Tee Time Golf Pass' book 을 사서 그 책에 있는 골프장으로 골라서 저렴하게 골프치게 되었다.



2014 년 여름에 시작한 월요 동기골프는 이상하게도 비 때문에 작년까지 골프를 못친 날이 없었다. 주말에 비가 오다가도 월요일이 되면 비가 그치고, 월요일 아침 새벽에 비가 와서 계속해서 오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해서 우리가 골프장에 나타나면 비가 그치곤 했다. 우리 모두들 이상하다고 했고 또 매우 감사해 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성실히 살아온 우리 동기들의 친교와 우정을 더욱 더 돈독히 만들어 주려고 배려해주는 것 같다고들 했다. 특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교회에서 장로직을 맡으며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이 깊은 의인 동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성경구절이 생각이 났다. “소돔땅에 의인 10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그 땅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느님께 간절히 부탁한 성서의 창세기가 떠올랐다. 하지만 기도의 약발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하느님이 돌볼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지 올해에는 월요일에도 비가 가끔 와서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꾸어서 골프칠 때가 있었다. 겨울에도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는 별로 춥지않고 눈도 거의 오지않아 겨울에는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날로 골라서 거의 매주 한 번은 골프칠 수 있었다. 어느 겨울 날 날씨가 풀려 골프장으로 향했다. 며칠동안 추웠던 탓에 땅속이 얼어 티가 들어가지 않아 돌로 티를 땅에 박아서 공을 친 적도 있었다.

골프대장의 지시대로 또는 골프카트를 타는 동기끼리 조를 만들어 2 명이 한 팀이 되어 그 팀 중 잘친 점수와 못친 점수끼리 비교하여 매 홀당 점수를 내는 High/Low Hole match 방식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다. 지는 팀이 끝나고 골프채를 닦아주는 골프장 종업원에게 팁을 주기로 했고 또는 맥주를 사기도 한다. 부득이 셋이 골프를 치게 되면 주로 Skins Game 을 하곤 한다. 골프가 잘 안맞을 때의 변명이 365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변명은 지난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허리가 아팠다, 설사를 많이 했다 등이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비거리가 줄어들어 Two On 하기 힘들다고 Senior Tee 에서 치자, 그냥 White Tee 에서 치자는 등 시작부터 말이 많아진다. 일단 시작하면 승부욕이 발동하여 긴장하고, 또 상대방의 기를 죽이거나 더욱 긴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게 재미있다. 약 4 시간 반 동안 땀 흘리고 난 후 19 홀에서 마시는 맥주는 참으로 시원하고 맛있다. 그리고 골프장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의 맛있는 식사와 담소는 우리를 더욱 즐겁게하는 활력소다. 또 2019 년 올해부터는 우리 동기 전부가 공동으로 워싱턴지부 서울의대 동창회를 맡아 식사하면서 동창회의 일을 상의하곤 한다. 이렇게 매주 월요일 동기골프를 언제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성서구절대로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

월요일에는 부인들도 자주 만난다. 아내가 주관하여 카카오톡의 동기부인 group chatroom 를 통해 남편들 골프칠 때 Centreville Korea Town 에 있는 음식점에 모여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 남편들은 저녁먹고 들어오므로 저녁식사 준비 안해도 된다고 좋아한다.

누군가 우리를 화백(화려한 백수)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래서 화백들은 월요일이 항상기다려진다.

